

학교복합시설 투자심사 간소화 조기 시행 〈중복투자심사 사전 방지로 예산과 행정력 낭비 요인 제거〉

• 개선배경

〈수원 권선지구 학교 복합화시설 건립(개교: '23.3월)〉

- 사업규모 : 곡반3초·중학교, 학교복합화(체육관, 대강당, 수영장 등 포함) 시설
- 사 업 비 : 721억원(국비 40, 시비 235, 기타 446 / 복합화 275, 학교 216, 부지 230)

※ 학교복합시설 : 학교부지 내 체육관·문화시설·도서관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보장하는 학교시설

-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하나의 사업에 대해 지자체, 교육청이 각각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투자심사를 받는 절차상 비효율 발생
 - 중복투자심사 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개교지연으로 지역의 교육여건 향상 부진, 집단민원 지속 발생, 관계기관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초래

▶ 중복된 행정절차 개선(투자심사 일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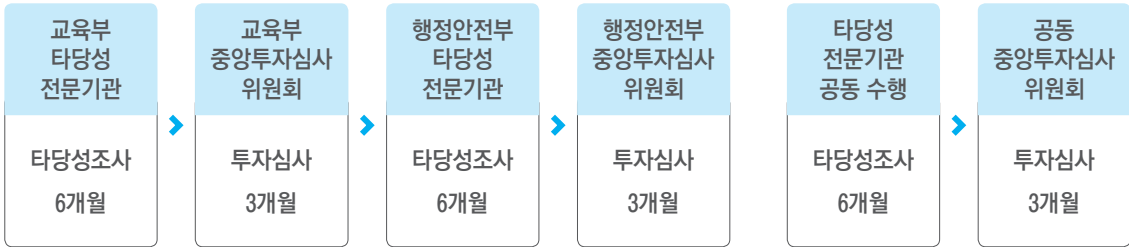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 지방재정 투입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투자심사 이원화(지자체→행정안전부, 교육청→교육부) ⇒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개교지연 예상	- 행정안전부 & 교육부 공동투자심사위원회 신설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공동 심사하기로 개선 ⇒ 최대 9개월 기간 단축

- 경기도 '지방재정 투입 학교시설 건립 관련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중복투자심사 일원화'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 일부 수용으로 회신
 - 법령 또는 지침(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개정 및 시행(9월)
- 경기도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교육부 조기 개정 건의 → 조기개정 공식화(6월)

(현행)

(개선)



• 개선효과

- 중복투자심사 사전 방지로 예산과 행정력 낭비 요인 제거

**6월부터 학교복합시설
심사기간 최대 9개월 단축**
“경기도 조기 개점 건의로 예산절감 효과·주민편의성 UP”

현행 (총 18개월)	개선 (총 9개월)
교육부 (타당성조사·투자심사) 9개월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투자심사) 9개월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투자심사) 9개월	타당성 전문기관 공동 수행 (타당성조사) 6개월
	공동 중앙투자심사 위원회 (투자심사) 3개월

* 학교복합시설: 학교교지 내 체육관, 문화시설, 도서관 등 복합시설 설치로 학생 및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기도 보도자료

보도자료
2020년 5월 29일(목) 오전
(8, 27,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심사 대폭 개선
- 학교복합시설 투자심사 간소화, 평가심사 확대 및 재심사 기준 완화 -

□ 행정안전부(윤관 전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대폭도 지방투자심사 절차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 학교복합시설의 투자심사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지방투자심사 면제 등 국가 정책의 실현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 학교부지 내 체육관·문화시설·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에 지원하고,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 자치단체의 원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심사기준 완화 (95%→45%, 평가심사 확대(2회→4회) 등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한다.

□ 먼저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와 합동하여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투자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2020년 6월부터 시행)

○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하나의 사업에 대해 지자체, 교육청이 각각 행정안전부, 교육부의 투자심사를 받는 절차상 비효율이 있었다.

- 총 사업비 : 10억 이하 20억원 이상, 면적 300㎡ 이상 500㎡ 이하
- 행정안전부 교육부는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설, 공동 심사하기로 개선하였고 그 결과 약 3개월의 기간 단축이 예상된다.

보도자료
2020. 5. 27(수) 배포

본도일 2020. 5. 28(목) 오전(부지 보도하지) 주시각 내(13:00) 전(13:00) 이후 보도 가능

담당과 지방교육정책과 담당자 고 정 000 (02-944-209-4199) 사무관 000 (02-944-209-4520)

수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의 공동투자심사 관련 절차 간소화를 위한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 학교복합시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시설 확대 및 시도교육청-일반자치단체의 협력 강화

□ 교육부(무종과) 및 교육부장관 윤종환과 행정안전부(윤관 전무)는 수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 간의 공동투자심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2020년 6월부터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적 타당성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

○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일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사업을 하려면 기존에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했다.

- 하지만 심사 시기가 일치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의 공동투자심사에 대한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

보도자료
2020. 6. 2(월) 배포

본도일 2020. 6. 2(월) 오전(부지 보도하지) 주시각 내(13:00) 전(13:00) 이후 보도 가능

담당과 지방교육정책과 담당자 고 정 000 (02-944-209-4199) 사무관 000 (02-944-209-4520)

학교복합시설 중앙투자심사 절차 간소화로 최대 9개월 단축
- 도의 규제합리화 조기 개점 건의 정부 수용

○ 행정안전부 교육부 공동투자심사위원회 신설에 투자심사 한 번만 실시

- 도, 지방의 공동투자심사 심판과 중 개척합리화 건의
- 수도 학교복합시설 추진 위해 조기개점 제안
- 중복투자심사 간소화에 따라, 행정 효율성 제고 기대

6월부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투자심사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심사기간이 최대 9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결국에는 학교복합시설 중앙투자심사 합리화를 위한 조기 개척을 정부에 건의한 결과, 그 내용이 수용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각자 투자심사를 해왔던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6월부터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고 지난날 28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일 때 받아야 하는 타당성조사도 한국지정개발연구원(한국지정개발연구원)과 한국교통대학교(교육부) 등 각각의 전문기관이 수행하던 것을 공동으로 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9개월,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9개월 등 총 18개월이 걸렸던 심사기간이 공동투자심사로 6개월, 공동투자심사 3개월 등 총 9개월로 최대 9개월까지 줄어든 전망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학교복합시설 신설 건립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교육부의 공동투자심사 심판회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정부에 규제